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	배포일자	2021년 2월 9일(화) 총 2매	
담당부서 자원순환과	담 당 자	• 자원순환정책담당 유상용 ☎440-3561 • 담당자 정소라 ☎440-3566	
사진	▣ 없음 ☐ 있음	참고자료	▣ 없음 ☐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‘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’으로 힘든 청사 주변 배달업체 어려움 해결방안 모색

- 배달음식점, 카페 대표와 간담회 개최-

○ 지난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청사내 1회용품 반입 금지 방침에 따라 주변 배달음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시가 해결 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섰다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8일 청사 주변 배달업체와 카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 주재로 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에 따른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.

○ 이자리에서 중국음식점 대표는 “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수저로 교체해 배달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, 수거 1회용 비닐식탁보 반입 금지로 제공하지 않자, 식사 후 용기를 신문지로 싸서 배출함에 따라 가게에 쓰레기가 늘어나는 애로사항이 있다” 고 말했다.

○ 또한, 김밥배달음식점 대표는 “그동안 1회용기로 김밥을 배달했으나 다회용 식기로 배달하면 부피가 커져 배달료가 추가되며 회수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○ 청사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는 “1회용품 청사 반입금지에 대응하고자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구매해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시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○ 이에 대해 시는 배달용기 배출시 신문지 대신 회수용 봉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바른 식기 배출방법을 전 직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또한, 다회용기 전환으로 배달수수료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배달료에 반영하고 이를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며, 여러 번 쓸 수 있는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컵 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, 직원들이 다회용컵으로 사용토록 안내해 2달 동안 시범운영해 보고 반입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협의했다.

○ 이 자리에서 오홍석 조정관은 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는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리며, 업체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.”고 강조했다.